

# 무주군, 도시 숲 조성한다

#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안군, 31일부터 시행... 24일부터 사전예약

## 기존 자연숲 정비·숲속 산책길 조성 사업 추진

무주군이 도시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와 경관 숲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도심 거리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자연숲을 정비하고 숲속 산책길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무주군이 산림 녹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도비 8억여 원, 군비 8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말 사업에 착공, 5월 중순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 숲 조성과 전통마을 숲 복원, 가로수조성사업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전개된다.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은 무주읍 칠리대교 일원에 경관을 개선하고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주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과 잎이 아름다운 관목(중가크기 이하 나무)과 교목(높이 8m 넘는 나무)을 식재한다.

전통 마을숲 복원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로 꼽히는 무풍 증산마을 숲을 복원해 문화자산 및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한다.

가로등 조성사업은 오산마을과 유숙마을 천변로 하천제방도로에 빛나무 등 가로수를 추가로 식재해 그늘쉼터로 조성하는 등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이수혁 과장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활권 녹지 공간 축소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도시숲을 조성한다"며 "도심에서 숲을 느끼며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조속한 시일 내 군민들이 도시 숲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 숲·전통마을 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기후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경관조성과 활착률을 살피면서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도시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22일 만 5~11세(2017. 1. 1. ~ 2010. 12. 31. 출생자)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까지가 접종 대상이며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접종은 소아전문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며, 1. 2차 접종간격은 8주(56일)지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3주(21일)로 조정이 가능하다.

관내에서는 소아 예방접종기관인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진안군의료원 등 2개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를 동반해 접종할 수 있다.

특히 만 12~17세(2010. 1. 1.~2005. 12. 31.출생자)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도 시행 중에 있다.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부터 2005년생까지의 청소년 중,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자가 3차 접종 대상자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로 단축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청소년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21일부터 접종 중에 있으며, 성인과 동일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구세의원 △김흥기가정의학과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송외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진안군의료원 △진안의원 등 8개소다.

박현숙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여 확진자 증가 및 중증환자 발생 예방에 힘쓰겠다"며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헬스푸드 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 가져

진안군은 22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선두주자를 양성하는 제1기 헬스푸드 아카데미 기본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특화자원인 홍삼, 약용작물, 곤충과 민간자생조식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도조직 양성을 위해 15~21일 까지 총 20시간의 헬스푸드 아카데미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농업인 47명이 참여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 온라인 중계에도 40명이 수료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과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해 교육받고, 사업계획서도 직접 작성해 보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통한 질의 응답과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진안군 사업추진단에서는 앞으로도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액션그룹 공모사업 운영 및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진안군수는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히 마친 40명의 수료생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업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진안군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23억원 투입한다

진안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개 분야 11개 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6개 사업 18억 2천만 원, 소득안정망 확충분야에 5개 사업 4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유기농업자재·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인증비용 및 검사비, 친환경 쌀 재배 농가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인증농가의 소득안정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지원으로 과수·채소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후계인력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한국회 장수군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장수군의회 한국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을 위해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육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활용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삶에 활력과 여유를 가져다줄기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본격적인 입산철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입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입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 단속 대상자인 장수군 계남면 정안리 장안산 일대 및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문갑시단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변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개소식

### 물리치료실·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특화사업 제공

장수군은 22일 변암면 노단리 시동강변공원에서 변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수 군수를 비롯한 김용문 군의회의장, 박용근 도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거리두기 등, 행사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변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며, 국도비 11억 원을 확보, 이

에 군비 11억 원을 더해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의 연면적 702㎡의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 1층은 의과·한의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문건강관리실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은 다목적교육실이 조성돼 있다.

변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고 면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으며, 꾸준히 이전,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물리치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수 군수는 "변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로 군민들에게 일반진료뿐 아니라 통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군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22일 변암면 노단리 시동강변공원에서 변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